

무안국제공항 개항 한달

탑승률 50% 이하...세관도 아직 없어

출입국 관리 등 광주공항 인력에 의존 조기 활성화 실패...노선 확보 등 시급

서남권의 대 중구 및 동남아 관문으로 지난달 8일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이 저조한 이용률과 졸속 개항에 따른 관련 업무 차질로 초기 활성화에 빨간 불이 켜졌다.

더욱이 공항을 서둘러 개항하는 바람에 국제공항의 기본 요건인 C(세관·customs), I(출입국 심사·immigration), Q(검역·quarantine) 체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공항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남도와 무안공항 취항 항공사 등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이 시작된 지난달 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평균 탑승률은 국제선 52%, 국내선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무안공항에서는 104편이 운항했으며 국제선은 5천324명, 국내선은 2천264명 등 모두 7천588명이 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별로는 무안~상하이 간을 운항하는 동방항공의 경우 출발 2천179명, 도착 2천342명 등 4천521명의 여객이 이용했으며, 무안~창사 간 남방항공은 도착 424명, 출발 379명 등 803명이 각각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안~김포 간을 운항하는 국내선 아시아나항공 이용자는 2천264명으로 조사됐다.

통상 공항운영의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탑승률은 국내선 78%, 국제선 70%대로 보고있어 무안공항이 적자를 면하려면 노선증가와 함께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이

용률을 크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무안공항은 국제공항의 기본 업무인 'CIQ 기능'을 광주공항의 인력에 의존하는 바람에 광주공항과의 동일시간대 국제선 취항이 불가능해져 관련 인력이 확충되지 않으면 취항 편수를 늘릴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공항 국제선 출입국 관리를 담당해

온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무안공항 개항 이전인 지난 4월 관련 부처에 인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23명의 직원 가운데 20여명이 2개로 조를 나눠 광주와 무안을 오가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무안공항 출입국 관리업무 때문에 민원이나 사증발급 등 본래 업무에 큰 혼선을 빚고 있다"며 빨리 인력을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세관업무 역시 광주공항 국제선 담당 인력 8~9명이 매일 조를 나눠 무안공항 국제항공편 이착륙 시간에 맞춰 출장 처리하고

있어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 공항편의시설은 면세점과 환전소가 입점했으며, 식당과 로밍센터는 오는 15일께 입점 예정이다. 식당은 현재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8월 광주공항이 폐쇄될 경우를 가정해 운항계획을 세웠을 당시엔 주 44편이 운항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광주공항이 존치되면서 주 15편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며 "아직은 시작 단계인만큼 공항 활성화 여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무안국제공항이 8일로 개항 한달을 맞았으나 신규 국제노선 확보는 물론 예정된 국제선조차 취소되는 등 무난한 국제공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항 한달을 이틀 앞둔 무안공항이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김경준李에 유리한 진술 후회”

鄭·昌측 변호인 “검찰 회유·협박 있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은 6일 검찰이 BBK 수사과정에서 김경준씨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으며 검찰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상대로 협공을 펴기 시작했다.

특히 양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인 김경준씨와 2시간 동안 접견을 가진 뒤 면담록을 언론에 공개하며 사실상의 '변론 공조'에 나섰다.

신당측이 공개한 면담록에 따르면 김경준씨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을 후회한다”며 “당시 검사가 12년 내지 16년 산다고 하니 까 무척 겁이 났고, 어떻게든 형을 내리시 살아야고 싶은 마음에 검찰에 협조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시사주간지에 공개된 험량 거대 메모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17층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어머니와 장모가 왔는데, 그 때 기다리면서 메모를 써서 있는 그대로 적어서 준 것”이라며 “솔직한 심경 그대로”라고 말하고 “이명박이는 사람 같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임내현 신당 부정선거감시단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사 당시 김씨는 김씨에게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고, 당신이 제출한 서류로는 (기소가) 어려울 것 같다. 계속 주장

했다가 이명박 후보가 보복을 한다면 12년 내지 16년의 중형을 받을 것이다. 검찰도 어렵고 당선도 어렵다. 서로 사는 길은 이명박을 위해 진술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회유하고 설득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임 단장은 “김씨는 미국의 플리마켓을 기대했던 모양”이라며 “검사로부터 ‘3년까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집행유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검찰서도 좋은 방향으로 하고 기소돼서도 여러가지 협조를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부득이 (검찰에 협조)하게 됐다고 털어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경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오재원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발표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이날 “검찰은 ‘김경준씨가 BBK는 자신의 소유이지 이명박 후보의 것이 아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지만 김씨의 뜻은 이 후보가 관련했다는 물증은 없지만 이 후보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한 검찰이 위조했다고 결론을 내린 ‘한글 이면계약서’에 대해 “김씨가 작성했으며 도장은 김씨가 이 후보 사무실에서 직접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에리카 김, 백기 들었나

반박 기자회견 돌연 취소 배경 주목

‘BBK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경준씨의 가족들이 5일 가질 예정이었던 한국 검찰수사결과 반박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 전 변호사와 부인 이보라 씨는 5일 오전 11시(한국시간 6일 오전 4시) LA 워셔프라이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3일 발표했었으나 회견 예정시간을 불과 1시간20분 가량 남겨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뚜렷한 취소 배경을 밝히지 않은채 회견 취소를 통보했다.

특히 에리카 김은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이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돼 있음을 밝히는 증거와 자료를 제시, 검찰 수사가 잘못됐음을 입증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취소 배경을 놓고 여러가지 설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검찰의 수사를 뒤집을 만

한 카드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구나 전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이 이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조목조목 공개한 마당에 기자회견을 통해 불확실한 주장만 늘어놓을 경우 기소된 김경준씨에게 오히려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LA지역에서는 에리카 김 등 김경준씨 가족이 백기를 들고 더이상 반박하지 않음으로써 김씨에 대한 형량이라도 낮추기로 결정하고 검찰에 이런 의사를 전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에리카 김은 그동안 취재진과 연락이 닿던 휴대전화의 전원을 아예 꺼놓은 채 잠적한 상태이며 베벌리 힐스에 있는 자택에도 인기척이 없는 상태다.

/연합뉴스

‘BBK 후폭풍’李 지지율 5%↑

晨은 하락·鄭은 정체...수사 발표 역풍 여부 관심

검찰의 ‘무혐의’ 수사결과 발표로 BBK의 큰 파고를 넘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우상향 곡선을 타기 시작했다.

이달 BBK 의혹 제기로 30% 중·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이 후보의 지지율이 5일 검찰 수사 발표를 기점으로 다시 40%대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검찰수사 발표 직후인 5일 오후 문화일보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44.7%로 지난달 27일 실시한 같은 조사 때(39.6%)보다 1주일여만에 5.1% 포인트(P) 상승했다.

한국경제신문과 중앙리서치가 5일 제우도를 제외한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후보는 42.6%의 지지율을 기록, 지난달 22~23일 같은 기간 조사 때(38.5%)보다 4.1% 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경우 13.1%로 지난달 조사(20.6%)보다 7.5%P 떨어졌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도 12.5%에서 11.0%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CBS와 리얼미터가 같은 날 19세 이상 전국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명박 후보 지지율은 45.3%로 1주일 전 같은 조사 때의 39.2%에 비해 6.1%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회창 후보는 13.1%로 1주 전(20.2%)보다 7.1%P 내려가 18.5%를 기록한 정동영 후보에게 2위 자리를 내줬다. 정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같은 조사(11.6%)에 비해 6.9%P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색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런 추세를 이어 선거일까지 지지율 50%를 넘기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측은 검찰 발표에 따른 역풍이 조만간 불 것이라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 조사까지 지켜봐야 여론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대선 국면이 지금까지의 BBK 김경준 국면에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의의가 있었느냐 여부로 옮겨갈 수도 있다”면서 “늘어난 부동층의 향배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ODEM 로템갤러리 - 직수입 엔틱가구 -

매장이전 으로 인한 **점포정리**

최고 70% 할인행사

특별기획상품행사

신상품 30%~최고 50%

로템갤러리

RODEM 로템갤러리

대표전화: 03629-053-0022